

#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286-9206)  
<http://www.jthink.kr>

- 문의 :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 담당자 :전북학연구센터 박정민 부연구위원  
(063-280-7171, 010-9938-6018)

보도시점 : 2021년 8월 26일(목)부터

## 후백제의 왕도에서 연구의 향방을 반추하다, 전북학연구센터 “다시 보는 후백제 학술대회” 개최

- 후백제 연구의 현재를 점검하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
- 후백제 문화권의 설정과 연구 성과 정리 등을 통한 정책화 토대 마련

[별첨: 학술대회 웹포스터 이미지]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 전북학연구센터가 2020. 8. 27(금). 13:30에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다시 보는 후백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후백제 연구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2021년도 전북학연구센터 학술지원사업의 기획논문으로 공모된 후백제 연구물 4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전라북도는 후백제의 왕도 및 주요 근거지로, 그동안 관심이 저조했던 후백제의 연구 및 발굴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대회를 준비하였다.
- 학술대회는 조법중 우석대 교수의 ‘후백제의 역사성격과 후백제 문화권 설정’을 시작으로 차인국 조선문화유산연구원 조사1팀장의 ‘후백제 고고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허인욱 한남대 교수의 ‘후백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와 김성배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의 ‘후백제 건원정권의 선승 정책’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재운 전주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진정환 국립제주박물관 연구실장, 조인성 경희대 교수, 이정빈 충북대 교수, 최홍선 국립익산박물관장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후백제사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공동연구의 틀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참석한 연구자들의 논의가 향후 「역사문화특별법」에 후백제가 포함될 수 있는 법 개정의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